

139. 같이살과 우리 모두

변호사 김여원

'장애인 인권법 센터'

수익자 변호

수익으로 받지 않고 진행

의료사고로 환자는 물론

공복을 지켜서

모양에서 장애인 못만남

다들한 연세 단체

강연, 연구 등으로 활동이 중단

↓
피상적으로만 생각

시각장애를 극복한 시각장애인 변호사

불편한 점도

일시적 장애도 인위적이지는 않다

재활 치료

많은

장애의 틀로 쳐두려 말라

5%

노년층 / 70대

(장애등급)

10-20% 정도

후천적 장애가 더 많은 91%

길화 : 사고

No pity : 동정하지말라

여 보라

→ 장애는 개 주치

불확실하다. 2. 도와줘도 될까요?

강수성

장애인 ↔ 비장애인

장애유 ⇒ 듣는 사람이 기본 나쁘

노년층의 경우

이성

병신같은거

비스 : 학습시간 많이 걸림

노년층에게는 제도

고숙비스 :

도움
정당한 편의) 장애인 차별금지법

스마트 기기 : 웹 사이트

포함

도로교통법 개정 : 한쪽 시력 없으면 1종 못받. 7년 전까지

23.

(특수학교 설립.
동향교육.) \Rightarrow 자기연평균

24.

2008년 2.4% 3.1%

거의 원금 정도 \Rightarrow 2개도,

8-22만 원.

\rightarrow 보험가입률.
보내려고 한단,

세 차량.